

한국교회와 동성애*

이경직 (백석대학교/조직신학)



이 글은 동성애 문제를 성경적 관점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먼저 동성애 반대를 동성애 혐오와, 심지어 회개해야 할 죄와 동일시하는 일부 주장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어서 대표적 동성애 옹호론자 테오도르 제닝스의 논의가 성경의 영감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동성애 관련 구절을 당대 문화에만 적용되는 구절로 해석함으로써 그 성경구절이 오늘날 독자에게 유효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제닝스는 왜곡된 성경해석을 통해 예수님을, 심지어 하나님까지 동성애자로 만든다.

이 글은 동성애 허용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입장도 비판한다. 그 입장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곳인 교회는 약자인 동성애자를 허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를 묘사하는 성경적 이미지는 가족이며, 가족이란 이성애자의 결혼 위에 성립한다.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결혼의 성경적 목적은 이성애자 사이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처럼 낯선 타자를 발견하고 긍정하는 인격적 행위는 이성애 관계에서만 가능하며 이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고 긍정할 수 있다. 또한 성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을 구분하는 동성애자의 기본 전략은 비판받아야 한다.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논문 접수일: 2017. 01. 31. 수정 접수일: 2017. 04. 10. 게재 확정일: 2017. 04. 12.

동성애 성향이 유전적이라면 동성애자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설령 동성애 성향이 유전적이거나 유전자 변형에 의한 것이라 해도 동성애 성향과 동성애 행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특정 질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지닌다고 해서 그 질병에 걸리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이 동성애 행위를 거부해야 하는 책임을 수행할 때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교회는 인내와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

주제어: 동성애, 교회, 성경의 영감, 동성애 성향, 제닝스, 유전적 결정론

I. 서론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교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동성애 문제를 한국교회가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어떤 비난을 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어느 정도까지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다룬 후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선천적 동성애의 존재’가 어떻게 비판될 수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설령 그 존재가 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를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룸으로써 글의 말미를 맺고자 한다.

제닝스의 성경 해석을 자세하게 비판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주요 동성애 옹호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기독교와 동성애』(서울: UCN, 2006)에서 자세히 다룰 때 제닝스의 논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데 있다. 제닝스의 성경 해석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일부 이미지만

을 교회를 이해하는데 쓴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제닝스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성경을 임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사용하며 성경 전체(*total Scriptura*)의 원칙에 따르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이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인데, 제닝스는 성경 구절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이고 왜곡된 교회론을 낳는다. 제닝스의 성경 해석을 검토한 후에 제닝스를 비롯한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교회론을 다루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동성애 결정론이 논리적 차원에서 볼 때 모순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 결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동성애 옹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 글에서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객관적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놓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거들만 사용하고 나머지 불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제닝스의 성경해석과 동성애자들의 교회론, 동성애 결정론을 차례로 다루고자 한다.

II.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

한국 사회와 교회가 공개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성 문제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는 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한국 교회도 인간의 육체와 성에 대해 금욕적이고 이원론적 태도를 지녀서 성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일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¹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기독교의 잘못된 금욕주의에 대항하여 성욕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았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성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

¹ 임희숙, “성 정체성의 형성을 도와주는 기독교교육”, 『새가정』 609 (2009): 50.

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여겨서 독신보다 결혼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²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성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성 간의 결혼의 목적은 개인의 쾌락과 자기 성취가 아니라 상호 섬김이며, 생육과 번식이다.³

그런데 성 도덕의 문란이 현대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 요섭에 따르면 여성인권진흥원의 2010년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촉한 청소년이 79.4%나 되며, 이는 청소년들이 그릇된 성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⁴ 결혼 관계 밖에서 성욕을 해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죄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⁵

한국 사회의 성 윤리가 약화되는 경향과 더불어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동성애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⁶ 2000년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동성애를 사회의 이슈로 만들기 시작했다. 한국 동성애자들은 2000년에 퀴어축제를 연세대에서 시작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고 인지도를 넓혀갔다. 동성애 반대를 성 소수자 차별로 여기는 미국 사회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도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다. 우간다에서 반동성애법을 제정했을 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뿐 아니라 보수 기독교 연합단체인 세계복음주의연맹(WEA)조차도 그것을 반대했다.⁷ 하지만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보수 기독교라는 프레임에 한국 기독교에 씌워서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태도를 바

² 김규식, “‘부부의 성(性)’ 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루터의 결혼 사상 연구”, 『기독교 교육정보』 29 (2011): 214, 217.

³ 홍병호, “기독교 성 윤리”, 『기독교철학』 2 (2006): 153, 159, 162-63, 184.

⁴ 전요섭, “청소년의 포르노그래피 접촉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22/1 (2014): 223.

⁵ 김규식, “‘부부의 성(性)’ 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루터의 결혼 사상 연구”, 212.

⁶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종교문화연구』 23 (2014): 228.

⁷ 권혁률,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전쟁 중”, 『기독교사상』 680 (2015): 225-27.

꾸고자 한다.⁸ 영화나 드라마는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함으로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시도한다.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일하는 한채윤과 같은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자 혐오를 동일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한채윤에 따르면 동성애 혐오증은 고소 공포증처럼 자연스러운 것일 수는 있지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지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채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성애자를 가족이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동성애 혐오자와 실제로 같다고까지 주장한다.¹⁰ 한채윤은 동성애 반대를 동성애 혐오와 동일시함으로써 동성애 반대를 표현할 권리까지 박탈하고자 한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 신앙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발언이 특정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모욕을” 가할 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그는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 혐오를 동일시하고 있기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적 입장 자체가 동성애 혐오가 되며, 그 결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¹¹

더 나아가 한채윤은 동성애 치료도 동성애가 질병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성애 혐오로 여긴다. 그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자발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만 성적지향 전환 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한 사례를 든다.¹² 그러나 그의 말대로 동성애 치료 자체가 동성애 혐오라면 성적지향 전환 치료를 선택한 성인은 자발적 학대를 받는 셈이다.

⁸ 미국에서는 ‘교회와 가족, 미국’이라는 프레임을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씌운다. Tina Fetner, “Ex-Gay Rhetoric and the Politics of Sexuality: The Christian Antigay/Pro-Family Movement’s “Truth in Love” Ad Campaign,” *Journal of Homosexuality* 50/1 (2005): 79.

⁹ Richard L. Holland, “Christian Parenting and Homosexuality,”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19/2 (2008): 219.

¹⁰ 한채윤,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연구』 30 (2013): 17-20.

¹¹ 한채윤,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30-31.

¹² 한채윤,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33-35.

동성에 옹호자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한국교회의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권혁률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많은 내부 문제와 위기를 피하기 위해 동성에 반대 운동을 통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자 한다. 그는 동성에 반대 운동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긴다.¹³ 퀴어 신학자 테오도르 제닝스(Theodore W. Jennings Jr., 1942-)는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의 이익에 봉사”한다고까지 주장한다.¹⁴

동성에 옹호론자들은 기독교도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기독교인 동성애자가 우울증이나 죄책감, 자살 충동, 소외 등을 겪지 않도록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이다.¹⁵ 미국 교회도 1966년 이전에는 동성애를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문제로 다루었으며, 주류 교단들이 동성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⁶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이종원과 같은 사람은 동성애 반대가 동성애를 혐오할 뿐 아니라 강한 죄의식까지 심는다고 비판하면서 동성애 혐오가 거둬나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¹⁷

제닝스¹⁸에 따르면 교회는 동성애자를 관용하기보다는 동성애자에게 끼친 피해를 회개해야 한다. 교회의 동성애 반대는 하나님 말씀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회개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이다.¹⁹ 이런 입장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는 18세기와 19세기 교회의 노예제도 찬성처럼 시대에 뒤떨어지며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²⁰ 동성애 문제의 해결은 동성

¹³ 권혁률,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전쟁 중”, 230.

¹⁴ Theodore W.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박성훈 역, 「기독교사상」 618 (2010): 231.

¹⁵ Nasrudin Subhi/David Greehan, “When Christianity and Homosexuality Collide: Understanding the Potential Intrapersonal Conflict,” *Journal of Homosexuality* 59 (2012): 1382-1383.

¹⁶ John P. Marcum, “Family, Birth Control, and Sexuality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1880-1980,” *Encounter* 52/2 (1991): 122-25.

¹⁷ 이종원, “거둬나야 할 동성애 혐오증”, 「제3시대」 25 (2011): 19-20.

¹⁸ 그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철폐 프로젝트(affirmative project)이 복음에 충실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Questioning)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2.

¹⁹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35-36.

애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전통적 기독교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있다는 것이다.²¹ 동성애 옹호 입장이 기독교 내에도 나타나면서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분쟁과 불일치를 겪고 있다. 많은 교단이 동성애 찬반을 둘러싸고 교단 분열을 겪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애 안수까지 허용한 상태에서 소속 한인교회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미국 목회자들은 동성애 문제를 노예제도 문제와 함께 보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²²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 성향을 창조 질서의 파괴로 여기며 동성애 행위를 부도덕하게 여기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를 묵인하라는 외부 압박을 받으면서²³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7월에 가톨릭교회가 동성애자에게도 문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기까지 했다.²⁴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성애자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내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²⁵ 한국교회에서는 커밍아웃하는 동성애자가 아직 없지만 미국의 영향 등으로 커밍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 기독교인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²⁶

Ⅲ. 기독교 내의 동성애 옹호론과 이에 대한 비판

기독교 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과 그 논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²⁰ John Zerilli, "Christians, Homosexuality, and the Same-Sex Marriage Question," *The Humanist* 70/3 (2010): 28.

²¹ Norman Pittenger, "Homosexuality and the Christian Tradition," *Christianity and Crisis* (August 5, 1974): 178.

²² Horace L. Griffin, "Revisioning Christian Ethical Discourse on Homosexuality: A Challenge for Pastoral Care in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53/2 (1999): 209-10.

²³ 박희중, "독신제와 혼인제 안에서 동성애", 「누리와 말씀」 27 (2010): 126.

²⁴ 정중규, "교회로의 환대, 가정시노드를 통한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다",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1062 (2014): 83-84.

²⁵ Pittenger, "Homosexuality and the Christian Tradition," 180.

²⁶ 정종훈,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인 입장의 모색", 「신학논단」 30 (2002): 342.

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성경적 근거와 교회론적 근거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동성애 옹호를 위한 제닝스의 성경 해석

성경을 동성애 옹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와 동성애』(서울: UCN, 2006)에서 그러한 해석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일일이 반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책에서 다루지 않은 제닝스의 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동성애 옹호를 위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닝스와 같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할 때 성경이 희생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특정 성경구절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여기는 해석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남녀 불평등을 정당화했던 성경해석처럼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게이 동성애를 죄로 여긴 성경구절은 구약 백성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신전 남창들의 행위를 본 충격을 반영할 뿐이다. 남성의 정액을 출산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남창들의 성 행위는 구약 백성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 따르면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 행위를 인정하는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더 이상 금지될 필요가 없다.²⁷ 제닝스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이 바벨론 유배가 많이 지난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근거로 이스라엘의 역사 대부분에서는 동성애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동시에 그는 레위기가 유대인 남성 교육을 위한 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대인들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는 레위기 20장 13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날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²⁸

제닝스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약한 이방인들을 대상

²⁷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6.

²⁸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7-28.

으로 집단적인 강간을 저지르려 하는 형태를 취했던 소돔의 불의를” 다루고 있을 뿐 동성애 금지와는 무관하다. 그는 이 본문이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재위 527-565년) 시대부터 독일 나치의 동성애자 살해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고 주장한다.²⁹

제닝스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도 동성애 반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말라코이(malakoi)는 약한 젊은이들을 나타내며,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는 신들의 범죄에 대해 사용되기에, 이 구절은 동성애가 아니라 폭력에 의한 납치와 강간을 금지한다. 제닝스에 따르면 로마서 1장은 황제의 사치와 폭력, 독재로 이루어지는 로마 제국 문명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황제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제국의 여성들에 대한 비판이다.³⁰

제닝스는 일부 성경구절들을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그에 따르면 다윗과 요나단, 롯과 나오미는 각기 서로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다윗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고 주장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을 향한 그의 첫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롯 이야기를 레즈비언 롯이 늙은 보아스를 유혹해서 아들을 얻어 자신의 파트너 나오미에게 준 이야기로 해석한다. 제닝스는 하나님이 남성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은 것을 일종의 동성애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든다.

제닝스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매매 여성과 간통녀로 묘사한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중풍병을 앓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마태복음 8장을 해석할 때, 그는 백부장이 자신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동성 애인인 소년이 회복되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다고 주장한다.³¹ 제닝스에 따르면

²⁹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6-27.

³⁰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9-31.

³¹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257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겹옷을 벗으실 때 여성의 일을 하셨다. 이로부터 그는 동성애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심지어 제닝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한 남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있는 자세가 예수님과 그 사람이 동성애 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고까지 주장한다.³² 그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누가복음 14장 26-27절을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동성애도 허용하는 확대 가족 공동체의 시작으로 해석한다.³³

2. 제닝스의 성경해석에 대한 비판

제닝스의 성경해석에 대해 길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의 주장은 너무 과격하고 근거도 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의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데 있다. 성경에는 인간적 요소뿐 아니라 신적 요소가 있다. 성경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읽어야 잘 이해된다. 동시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때때로 일반적 원리뿐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도 성경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경우 그 적용이 언제나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용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가능케 하는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치 않게 타당해야 한다. 오늘날 구약의 제사법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지만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원리는 변치 않으며,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닝스의 주장과는 달리, 이스라엘 주변국가가 저지르는 제6계명 위반을 모세 율법이 다룰 때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애 위반을 다룬다.

³²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32-34.

³³ 이종원, “거듭나야 할 동성애 혐오증”, 23.

롯에게 온 두 천사를 위협한 소돔 사람들은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5)고 말한다. 이 때 ‘상관하리라’는 단어는 ‘알다’(yadha)의 번역어로서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창 19:8)고 말할 때 ‘가까이’로 번역되는 ‘아는’과 같은 단어이다. 특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벧후 2:7)이라는 표현은 소돔 사람들의 죄가 동성애였음을 드러낸다. 소돔 사람들의 죄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죄라는 이유로 그들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환대하지 않을 때 동성애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송인규가 지적하듯이 “소돔성의 멸망 원인 가운데 불손함/불친절도 포함되었지만 주된 사안은 역시 동성애”이다.³⁵ 강규성도 “동성애 문제가 약자에 대한 집단적 폭력과 함께 다루어진다.”라고 지적한다.³⁶ 신득일의 지적처럼 “소돔의 죄를 언급한 유대 전승은” “환대와 음란을 동시에 말하더라도 동성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³⁷ 신득일은 창세기 18장 사건이 “동성애적 집단 성폭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잘 평가한다.³⁸

제닝스의 성경 해석은 동성애 옹호를 위해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찰스 하지(Charles Hodge)에 따르면 죄를 바라보는 죄인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과 너무나 다르다. 처음에 특정 죄를 혐오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그 죄에 대해 둔감해지기도 한다.³⁹ 동성애를 죄로 여기던 사람들이 미디어 등에 나타난 동성애에 점차 노출되면서 동

³⁴ Joseph Njino, "Christian Marriage in the Era of Homosexuality," *African Ecclesial Review* 46/4 (2004): 351.

³⁵ 송인규, “동성애·동성혼 시대에 되돌아보는 복음주의적 성·결혼·가족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8차 정기논문발표회: 성, 가정, 사회』(2016. 10): 7.

³⁶ 강규성, “구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8차 정기논문발표회: 성, 가정, 사회』(2016. 10): 81.

³⁷ 신득일, “소돔의 죄: 동성애인가? 약자에 대한 냉대인가?”, 『성경과 신학』 48 (2008): 8.

³⁸ 신득일, “소돔의 죄: 동성애인가? 약자에 대한 냉대인가?”, 33-34.

³⁹ Charles Hodge, *The Way of Life*, 원광연 역,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개요』(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47-48.

성애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의 지적처럼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의 도덕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덕감을 판단하고 바꾸어 놓아야 한다. 제닝스의 성경해석은 전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올리버 버스웰(J. Oliver Buswell, 1895-1977)에 따르면 로마서 1장 18절-2장 13절에서 동성애까지 포함되는 죄의 목록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⁴⁰ 하나님의 사랑은 동성애자를 포함하여 모든 죄인을 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다.⁴¹

3. 동성애 옹호를 위한 교회론적 논의

제닝스와 같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 혐오가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정의와 자비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일은 그러한 선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⁴² 제닝스에 따르면 교회가 성적 관계에서 실현되는 가치나 성적 친밀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혼외 성관계는 하지 말라고만 하면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회가 동성애 혐오를 보이는 경우 청소년 동성애자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게 된다.⁴³ 그러하기에 제닝스는 동성애를 개인과 교회에 유익한 것으로 보는 목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⁴⁴ 호레이스 그리핀(Horace L. Griffin)에 따르면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더불어 교회의 모든 모임과 성례에 참여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다양

⁴⁰ Oliver Buswell,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권문상, 박찬호 역, 『조직신학 1권』(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2005), 390-91, 393.

⁴¹ Njino, "Christian Marriage in the Era of Homosexuality," 351.

⁴²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3.

⁴³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3.

⁴⁴ Griffin, "Revisioning Christian Ethical Discourse on Homosexuality: A Challenge for Pastoral Care in the 21st Century," 210-11.

성이란 유익을 얻을 수 있다.⁴⁵ 노만 피텐저(Norman Pittenger)에 따르면 연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는 동성애가 이성애처럼 연합을 추구하는 사랑의 행위인 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⁴⁶

김희수에 따르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인종과 종교, 성별, 신분뿐 아니라 성적 지향성까지도 초월해서 각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동성애자와 같은 약자를 특히 배려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김희수에 따르면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는 동성애자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있으며, 그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은혜이다.⁴⁷

제닝스에 따르면 부도덕한 이성애 관계가 있듯이 부도덕한 동성애 관계도 있고 도덕적인 이성애 관계가 있듯이 도덕적인 동성애 관계도 있다. 그가 보기에 목회자는 평생 반려자로 살아가는 안정되고 건전한 성관계라면 동성애든 이성애든 유지하도록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가족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정죄하는 일은 이성애 가정의 폭력적 확대와 근친상간을 은폐하는 일이 된다.⁴⁸

4. 교회론적 동성애 옹호론에 대한 비판

성경이 교회를 묘사하는 대표적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가족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모델로 하는 부부의 언약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히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혼 언약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⁹

⁴⁵ Griffin, “Revisioning Christian Ethical Discourse on Homosexuality: A Challenge for Pastoral Care in the 21st Century,” 218.

⁴⁶ Pittenger, “Homosexuality and the Christian Tradition,” 180.

⁴⁷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256-57.

⁴⁸ Jennings Jr.,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225.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보완하도록 한다.⁵⁰ 남성과 여성은 신체와 감정에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⁵¹ 특히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말씀이었다. 아담의 실패 이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대위임령을 통해 문화명령을 새롭게 하셨다. 대위임령은 영적으로 새로워진 백성으로 땅을 채우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문화명령이 대위임령에서 영적 의미를 얻지만, 자녀 출산을 통한 선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처음 받은 사명이 자녀 출산이었기에 결혼은 오직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⁵²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본성과 자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남성은 남성성 때문에, 여성은 여성성 때문에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함께 인간성을 이루어나간다.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 정체성(gender)을 분리시키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⁵³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 타자(the wholly Other)이셨지만 언약 관계를 통해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신다. 인간은 전혀 낯선 존재인 하나님을 언약 관계로 만나 교제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찾고 긍정하게 된다. 이처럼 남성은 자신에게는 낯선 여성을 만나고 그 이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고 긍정하게 된다. 동성에 관계는 낯선 이성을 만나고 인정하는 인격적 과정이 없으며, 자신과 동일한 성을 만나 자신의 성적 자아를 확대하는데 그친다. 동성애자는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고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⁵⁴

⁴⁹ 홍병호, “기독교 성 윤리”, 199-202.

⁵⁰ Njino, “Christian Marriage in the Era of Homosexuality,” 340.

⁵¹ Njino, “Christian Marriage in the Era of Homosexuality,” 341-42.

⁵² Njino, “Christian Marriage in the Era of Homosexuality,” 343-44.

⁵³ Ferdinand Nwaigbo, “Homosexuality: A Distortion of Christian Marriage,” *African Ecclesial Review* 46/4 (2004): 331.

⁵⁴ Nwaigbo, “Homosexuality: A Distortion of Christian Marriage,” 322.

루터는 결혼을 배우자 사랑과 자녀 출산, 자녀 양육을 통한 언약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룩한 소명으로 여긴다. 이는 영적 자녀의 출산과 양육, 이웃 사랑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서로에 대해 신실해야 하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한다.⁵⁵

성은 결혼 언약을 맺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사이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배타적 사랑을 하시기에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간음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에베소서 5장 22-23절에 따르면 교회의 머리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적 사랑을 보이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결해야 한다. 부부는 상호 헌신하는 관계에 있기에 성적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 관계 외에는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⁵⁶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성적 타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이유도 결혼이 사람들 사이의 언약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했기 때문이다.⁵⁷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결혼 언약을 모델로 삼는 결혼 관계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⁵⁸ 또한 성경에서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 관계는 동성애를 포함하여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성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며 신뢰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⁵⁹

성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은 인간이 자유롭

⁵⁵ 김규식, “‘부부의 성(性)’ 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루터의 결혼 사상 연구”, 224-28.

⁵⁶ 김규식, “‘부부의 성(性)’ 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루터의 결혼 사상 연구”, 230-31.

⁵⁷ 이오갑, “칼뱅에 따른 성(性)문제들 - 간음과 음락, 매매춘, 성병, 동성애를 중심으로 -”, 『장신논단』 40 (2011): 234.

⁵⁸ Nwaigbo, “Homosexuality: A Distortion of Christian Marriage,” 327.

⁵⁹ 홍병호, “기독교 성 윤리”, 169.

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성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⁶⁰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부 동성애자들은 자녀 출산 등과 같은 결혼의 목적은 파괴하면서도 결혼을 지향한다.⁶¹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결합을 이성애자의 결혼과 동등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적 소수자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성경은 올바른 목적 없는 성 관계를 행하는 동성애 행위를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로 규정한다.⁶²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를 민족이나 언어 등과 같은 부류로 놓기는 어렵다. 민족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와 달리 동성애 행위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⁶³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결혼관을 세속 정부에 강요할 권리가 기독교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헌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⁶⁴ 모든 이성애적 관계가 법 안에서 정당화될 수 없듯이 모든 동성애 관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이성애적 관계가 법으로 보장되듯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동성애 관계도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이를 위해 이성애자들이 결혼 제도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듯이 동성애자들도 결혼 제도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⁶⁵ 조재현은 동성애자를 법적 제도로 보호하는 경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 가령 친척들에게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친척들이 이성 결혼 관계에서나 동성 결혼 관계에서처럼 상호 간의 배타적인 부양이나 책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 비판을 피하고자 한다.⁶⁶

⁶⁰ 홍병호, “기독교 성 윤리”, 160-61.

⁶¹ Nwaigbo, “Homosexuality: A Distortion of Christian Marriage,” 315.

⁶² 박희중, “독신제와 혼인제 안에서 동성애”, 150.

⁶³ 최성욱,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자기배려의 덕-덕의 윤리학 관점에서 사목적 돌봄의 의미”, 『인격주의 생명윤리』 5/2 (2015): 128-29.

⁶⁴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265, 267-68.

⁶⁵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8/3 (2002): 148.

이러한 논리는 성경이 말할 뿐 아니라 사회가 오랜 동안 인정한 결혼 목적 중 자녀출산과 양육을 임의로 삭제할 때에만 성립된다. 성의 이러한 근본 목적은 동성애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성애 관계는 이성애 관계와는 달리 실제적이고도 완전한 성적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상호 자위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이성애를 모방하는 위조품일 뿐이다.⁶⁷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인 제5계명은 이성애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며, 이 계명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되풀이된다. 동성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동성 결혼은 성경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⁶⁸ 동성애자 결합을 통해서 는 자녀 출산이 불가능하기에 동성애자 결합은 세대의 연속성이라는 공공선에 이바지할 수도 없다.⁶⁹

인구 과밀로 고생하는 시대에 자녀 출산을 결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로마 가톨릭 내에도 있다.⁷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상황에 따라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성 결혼은 자녀출산을 못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판단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들이 동성애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면 그들의 성적 성향과 판단은 그러한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독일이 동성애자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도 동성애 커플에게 입양권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⁷¹

이에 대해 이성애자 부모를 둔 자녀도 부모선택의 권리가 없듯이 동성애자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가 부모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동성애자 부모도 자기 자녀는 동성애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⁷² 그러나 이는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⁶⁶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175-76.

⁶⁷ Njino, “Christian Marriage in the Era of Homosexuality,” 356-57.

⁶⁸ Holland, “Christian Parenting and Homosexuality,” 218.

⁶⁹ 이미영, “가톨릭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관점 2”,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868 (2009): 26.

⁷⁰ 정종규, “교회로의 환대, 가정시노드를 통한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다”, 84-85.

⁷¹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177.

결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또한 이성애자 부모 아래 태어난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동성애와 이성애가 모두 용인되어야 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동성애 행위는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성적 취향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논리만 따라 가면 동성애 뿐 아니라 수간과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도 모두 허용해야 한다.⁷³ 그 경우 짐승과 결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녀 입양 권리를 내세울 때 그 요구를 막을 근거가 없게 되며, 그 아이의 한쪽 부모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야 한다.

5. 동성애 결정론에 대한 비판

상당수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적 정체성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자발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에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⁴ 그러나 길원평과 민성길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동성애자의 동성애 성향이 유전이라면 동성애자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에 동성애자는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설령 동성애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 해도 많은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동시에 일으켜야 하는데 그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⁷⁵ 동성애 성향이 태아기에 성 호르몬 이상을 겪은 결과라는 주장이 있지만, 호르몬 수치에 있어서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성 호르몬 주사는 성욕의 증가와 감퇴에 영향을 줄 뿐 동성애 성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길원평과 민성길에 따르면 2000년 호주 데이터 베이스의 일란성 쌍둥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들 간의 동성애 일치율이 매우 낮았다.⁷⁶ 길원평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 성향은

⁷² 한채운,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20-21.

⁷³ Nwaigbo, “Homosexuality: A Distortion of Christian Marriage,” 321.

⁷⁴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247, 249.

⁷⁵ 길원평, 민성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3-14.

⁷⁶ 길원평, 민성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4-17.

유전이 아니다. 청소년기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다.⁷⁷ 동성애 성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동성애 성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해도 동성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동성애 성향과 동성애 행위는 서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을 그냥 보는 행위와 여성을 음욕을 품고 보는 행위를 구분한다. see와 look at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 ‘보다’는 ‘look at’(NIV)이다. 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동성애 성향이 see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과 look at처럼 행동으로 적극 나타나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무의식적 끌림과 의도적 행위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간의 책임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가령 특정 질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신에게 그런 유전적 성향이 있음을 아는 경우 그 성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젊은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을 강하게 느꼈기에 도리어 그 자리를 빨리 떠났다.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이다. 유혹을 받을 때에는 그곳을 피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 설령 동성애 성향을 느낀다 해도 그 성향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⁷⁸

동성애에 대한 끌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난다. 인간의 특정 발달단계에서 동성 친구와 더 가깝게 포래집단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런 성향이 있다고 실제로 동성애 행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를 행하는 것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죄의 성향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동성애 성향

⁷⁷ 김원평, 민성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8-19.

⁷⁸ Sherwood O. Cole, “The Biological Basis of Homosexuality: A Christian Assess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3/2 (1995): 89.

이 있다 해서 동성에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은 범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⁷⁹

이러한 성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품이기에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⁸⁰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일을 반대한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책임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⁸¹ 그런 의미에서 죄는 숙명인 동시에 잘못이기도 하다.⁸²

이는 성경 밖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심리학 등의 발달로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행동이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안다. 동시에 우리는 의지적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도 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과 법 자체도, 보상과 처벌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잘 한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보상을 요구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외부로 돌려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어야만 보상뿐 아니라 처벌도 가능하다.

유전적 결정과 자유의지의 선택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도 둘 다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인식은 완전하지 않다. 두 가지를 모두 확실한 데이터로 받아들여야 한다. 동성에 성향이 유전적이라 주장하는 동성애자조차도 자신의 동성에 행위에 대해 성적 소수자의 권리라는 이름 아래 자율적 권리와 책임을 주장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⁷⁹ 양승훈, “소위 동성에 유전자는 면죄부인가?”, 『통합연구』 40 (2003): 193-95.

⁸⁰ Hodge,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개요』, 62-65.

⁸¹ R. T. Kendall, *Understanding Theology*, 장광수 역, 『조직신학 강의 I』(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76-79.

⁸² H. G. Pohlmann,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서울: 신앙과지성사, 2012), 277-79.

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⁸³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고 약속하신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동성애 성향을 갖고 태어나도록 예정하셨다는 등의 논리를 통해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성립될 수 없다.⁸⁴

동성애 치유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를 용납하지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는 알콜 중독을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콜 중독자에게 계속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알콜 중독 극복이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동성애 치유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동성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치유 받고자 하는 동성애자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⁸⁵ 어렵다는 이유로 동성애 치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⁸⁶ 이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평생 갈망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성화 과정에 필요하다. 동성애 치유 과정에서도 그러하다.

⁸³ Hodge,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개요』, 73-75.

⁸⁴ Buswell, 『조직신학 1권』, 421-22.

⁸⁵ 김원평, 민성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25-26.

⁸⁶ Ted D. Evans, “Homosexuality: Christian Ethics and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 (1975): 97-98.

IV. 동성애자를 향한 교회의 태도

하나님은 동성애를 통해서도 성적 쾌감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이며 이성애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을 가르쳐 주신다. 때때로 동성애 충동을 느끼더라도 이성애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교회 공동체는 유혹에 연약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⁸⁷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바꿀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성애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는⁸⁸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독교 속죄론에 따르면 공의 없는 사랑은 없으며, 속죄 없는 화해는 없기 때문이다. 동성애자가 동성애 성향에 대해 경계하고 동성애 행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에 용서는 치유와 구속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는 동성애 성향의 소유자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사람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스텐리 그렌츠의 주장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환영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를 긍정할 수는 없다.⁸⁹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어떤 죄이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출교를 결정하듯이 회개치 않는 동성애자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⁹⁰

동성애 행위를 끊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가 적극 도와야 한다. 동성애 행위는 한 번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상황 변화에 대해 동성애자는 행동의 적응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이성적인 적응을 점차 해 나가야 한다.

⁸⁷ 소향숙, “기독교 생명존중과 동성애”, 『종교문화학보』 12 (2015): 98.

⁸⁸ Evans, “Homosexuality: Christian Ethics and Psychological Research,” 94-97.

⁸⁹ Stanley Grenz, *Welcoming but Not Affirming: An Evangelical Response to Homosexuality*, 김대중 역,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⁹⁰ Evans, “Homosexuality: Christian Ethics and Psychological Research,” 97.

이를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동성애자가 이전에 속했던 동성애자 공동체에서 벗어나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재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세워갈 필요가 있다. 그들이 겪는 혼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교회가 겪는 낯설음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그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⁹¹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정죄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는 동시에 아직 연약한 동료로 대해야 한다. 동성애 성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텐리 그렌츠의 제안처럼 독신 생활을 하면서 더 큰 가족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책임을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성애 성향을 지니는 여성은 청년부에서 한 남성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 자매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V. 결론

성 담론을 꺼려하는 한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성 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한국교회에 맞서 동성애 반대를 동성애 혐오와 동일시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 반대를 회개해야 할 죄로까지 규정하는 입장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퀴어 신학자 제닝스는 기독교 내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 그는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그는 주로 동성애 관련 구절을 당대 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구절로 해석하고자 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⁹¹ Nwaigbo, "Homosexuality: A Distortion of Christian Marriage," 333.

말씀으로서 당대 독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독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 말씀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닝스는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동성애자로 만드는 성경 해석을 감행했다.

교회론의 입장에서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었다. 이 입장은 교회를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곳으로 규정한 후에 동성애를 허용해야 정의와 자비를 베푼다는 교회의 선언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별이 없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동성애자를 인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성애자의 결혼 위에 성립하는 가족이 교회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이성애자 사이의 연합만이 자녀출산과 양육이라는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다. 인간은 그에게 전적으로 낯선 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긍정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고 긍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애적 결합이 아니라 이성애적 연합만이 이러한 참된 자기 발견과 긍정을 가능케 한다. 또한 성은 인간이 자의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적 정체성(젠더)을 구분하는 동성애자의 기본전략은 비판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는 동성애가 자녀출산이라는 결혼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입양이라는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 커플에게 입양권을 허용하는 경우 동성애자가 자신의 입양권을 주장하면서도 입양되는 미성년자의 선택권은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기에 동성애 행위에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잘못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의 결과라면 지금 동성애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자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에 동성애 유전자는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잉태 후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동성애 성향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성애자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동성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호르몬의 증감은 성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하고 성욕의 증감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설령 동성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동성애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 성향과 동성애 행위는 서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질병에 유난히 취약하다 해서 그 질병에 걸려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그런 경우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성애 행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책임이 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책임을 수행하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야 한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인내와 사랑, 공감을 품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고 공개적으로 이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다른 죄에 대한 권징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수단인 출교조차도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과 온유로 행해져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동시에 동성애자의 어려운 형편을 돕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치과진료를 거부당하는 에이즈 환자들을 몇몇 기독교인 치과의사들이 정기 검진 및 치료하고 있는 사례처럼 교회는 동성애자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를 미워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규성. “구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8차 정기논문발표회: 성, 가정, 사회」 (2016. 10): 81, 69-82.
- 권혁률.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전쟁 중”. 「기독교사상」 680 (2015): 224-30.
- 길원평. 민성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신앙과 학문」 19/1 (2014): 7-36.
- 김규식. “‘부부의 성(性)’ 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루터의 결혼 사상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29 (2011): 211-38.
- 김윤옥. “가정에서의 성교육, 사랑의 윤리를 바탕으로”. 「새가정」 380 (1988): 24-27.
-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종교문화연구」 23 (2014): 227-76.
- 박희중. “독신제와 혼인제 안에서 동성애”. 「누리와 말씀」 27 (2010): 125-57.
- 소향숙. “기독교 생명존중과 동성애”. 「종교문화학보」 12 (2015): 97-135.
- 송인규. “동성애·동성혼 시대에 되돌아보는 복음주의적 성-결혼-가족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8차 정기논문발표회: 성, 가정, 사회」 (2016. 10): 7, 3-32.
- 신득일. “소돔의 죄: 동성애인가? 약자에 대한 냉대인가?”. 「성경과 신학」 48 (2008): 7-36.
- 양승훈. “소위 동성애 유전자는 면죄부인가?”. 「통합연구」 40 (2003): 187-208.
- 이미영. “가톨릭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관점 2”.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868 (2009): 22-27.
- 이오갑. “칼뱅에 따른 성(性)문제들: 간음과 음락, 매매춘, 성병, 동성애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0 (2011): 233-57.

- 이종원. “거듭나야 할 동성애 혐오증”. 『제3시대』 25 (2011): 19-25.
- 임희숙. “성 정체성의 형성을 도와주는 기독교교육”. 『새가정』 609 (2009): 50-55.
- 전요섭. “청소년의 포르노그래피 접촉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22/1 (2014): 221-55.
- 정종훈.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인 입장의 모색”. 『신학논단』 30 (2002): 341-51.
- 정중규. “교회로의 환대, 가정시노드를 통한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다”.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1062 (2014): 80-87.
-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8/3 (2002): 146-78.
- 최성욱.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자기배려의 덕: 덕의 윤리학 관점에서 사목적 돌봄의 의미”. 『인격주의 생명윤리』 5/2 (2015): 121-53.
- 한채윤.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연구』 30 (2013): 15-38.
- 홍병호. “기독교 성 윤리”. 『기독교철학』 2 (2006): 151-212.
- Buswell, Oliver.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권문상, 박찬호 역. 『조직신학 1권』. 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2005.
- Cole, Sherwood O. “The Biological Basis of Homosexuality: A Christian Assess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3/2 (1995): 89-100.
- Evans, Ted D. “Homosexuality: Christian Ethics and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 (1975): 94-98.
- Fetner, Tina. “Ex-Gay Rhetoric and the Politics of Sexuality: The Christian Antigay/Pro-Family Movement’s “Truth in Love” Ad Campaign.” *Journal of Homosexuality* 50/1 (2005): 71-95.
- Grenz, Stanley. *Welcoming but Not Affirming: An Evangelical Response to Homosexuality*. 김대중 역.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Griffin, Horace L. "Revisioning Christian Ethical Discourse on Homosexuality: A Challenge for Pastoral Care in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53/2 (1999): 209-19.
- Hodge, Charles. *The Way of Life*. 원광연 역.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개요』.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Holland, Richard L. "Christian Parenting and Homosexuality."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19/2 (2008): 217-31.
- Jennings Jr., Theodore W.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박성훈 역. 「기독교사상」 618 (2010): 222-36.
- Kendall, R. T. *Understanding Theology*. 장광수 역. 『조직신학 강의 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Marcum, John P. "Family, Birth Control, and Sexuality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1880-1980." *Encounter* 52/2 (1991): 105-45.
- Njino, Joseph. "Christian Marriage in the Era of Homosexuality." *African Ecclesial Review* 46/4 (2004): 339-65.
- Nwaigbo, Ferdinand. "Homosexuality: A Distortion of Christian Marriage." *African Ecclesial Review* 46/4 (2004): 315-38.
- Pittenger, Norman. "Homosexuality and the Christian Tradition." *Christianity and Crisis* (August 5, 1974), 178-81.
- Pohmann, H. G.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2.
- Subhi, Nasrudin/Greelan, David. "When Christianity and Homosexuality Collide: Understanding the Potential Intrapersonal Conflict." *Journal of Homosexuality* 59 (2012): 1382-1402.
- Zerilli, John. "Christians, Homosexuality, and the Same-Sex Marriage Question." *The Humanist* 70/3 (2010): 28-32.

Abstract

Homosexuality and Korean Church

Lee, Chris KyungJi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how Korean church should deal with the problem of homosexuality from the biblical and ecclesiological perspective. My critic against Theodore W. Jennings, Jr's interpretation of some biblical passage about homosexuality lies in that his interpretation implies the practical denial of the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His distorted interpretation makes Jesus and God homosexuals, which shows that he starts from the firm assumption that homosexuality should be recommended in the Scriptures.

My critic is also against those who suggest that the concept of church as the place of justice and mercy supports that homosexuals should be acknowledge and supported by the church. I think that one of the main images of church is that of family which consists of the marriage between man and woma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shows a personal relationship found in the act of finding and affirming the strange other. Not the homosexual but the heterosexual relationship has such a personal relationship. The distinction between biological sexuality and sociological gender should be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sexuality is not the object of human choice but the gift of God.

One of crucial critics against homosexuality is that the homosexual orientation is not genetic. The opinion that homosexuality is genetic implies that homosexuals cannot be exist any more, for homosexuals cannot transfer

their genes to next generation. The suggestion that homosexuality is genetically modified cannot prove that homosexuals do not have any responsibility for their homosexual acts, for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homo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 act. An attempt to prove that makes a naturalistic fallacy. Church should show enduring love and systematic care and support for homosexuals who are expected to repent their homosexual acts and return to church.

Key-Words: Homosexuality, Church,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Homosexual Orientation, Jennings, Genetic Determinism